

##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봄 첫 주말에 다시 연락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나는 덴버 식물원에서 한 친구와 만났다. 정원을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아주 맑고, 쾌적한 아침이었다. 잔디는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으나 아직도 많은 텃밭은 건조하고 불모지같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거친 땅을 부드럽게 뚫고 나오는 다양한 많은 새싹이 보였다. 우리의 산책이 끝나갈 무렵 나는 보라색과 흰색의 크로커스(할미꽃)로 덮인 화려한 텃밭에 이끌렸다. 이 첫 꽃이 주님의 고난과

다가올 빛을 상기시키는 붉은 색과 황금색의 흔적을 지닌 사순절 계절의 장엄한 색채인 것은 매우 놀라웠다. 이 활짝 핀 꽃들은 마치 빛나는 햇빛을 모두 흡수하기 위하여 활짝 열고 위로 뻗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완벽한 찬양의 꽃잎이었다. 신묘하게 섬세한 활짝핀 꽃들의 아름다움에 내 마음은 단 순간에 경이로 부풀었다. 그것들이 내 숨을 멎게 했다. 한 좋은 친구와의 격의 없는 대화와 산책으로 시작한 것이 아름다움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져왔다.

Mary Beth Ingham, CSJ 는 *프란치스칸 전통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인 주님의 작품들에 기뻐하라* 의 한 인용구에서 아름다움에 접근하는 영적 여정에서 세 개의 다른 순간을 식별하였다. 그것들은 아름다운 무언가를 알아차리는 순간인 *인식*. 경험을 통하여 피조물에서 창조주로 옮겨갈 때의 *전개*.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것의 원천과의 근본적인 영적 교감인 *포용*<sup>1</sup>. 아름다움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자신을 잊게 하고, 우리자신의 삶과 사소한 문제를 넘어서 다른 차원으로 옮겨주는 힘이 있습니다.<sup>2</sup> 이 순간들은 프란치스칸 전통에 있어서 미에 대한 이 작품의 맨 처음 부분의 일견일 뿐입니다.

TAU-USA 의 2007 년 여름호에 Teresa Bake 가 자연을 통해 하느님과의 만남에 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그녀는 제가 여러분이 한 번 더 경험했으면 하는 양성 활동을 제공했습니다. "밖에 나가 산책하세요. 한 피조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과 같이 있고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하느님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sup>3</sup> 당신이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까? 창조의미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당신의 경험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회칙은 "하느님의 인장을 지닌 생물과 미생물, 모든 피조물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창조물과의 보편적인 친밀감으로 인도합니다. . . .", 제 II 장, 18 번.

이 짧은 한 개인적인 아름다움과의 만남을 나눈 것은 이 위원회의 비전과 열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sup>1</sup> Ingham, Mary Beth CJS, excerpt from *Rejoicing in the Works of the Lord: Beauty in the Franciscan Tradition* Franciscan Connections: The Cord 6 A Spiritual Review; Vol. 65, Issue 1, March 2015, pgs. 20-21.

<sup>2</sup> Ingham, Mary Beth CJS, *Rejoicing in the Works of the Lord: Beauty in the Franciscan Tradition*, The Franciscan Heritage Series; Volume 6

<sup>3</sup> TAU-USA, Summer 2007, Issue 55, p. 14

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프란치스칸 으로 성장하고 우리 양심을 개발하면서, 우리 서로를 잘 알게 되고, 그리스도, 서로, 또 창조물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변화시키시는 성령에 여러분이 열려있도록 항상 초대하는 것 입니다.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프란치스코 성인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아름다움을 찬양 하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룩한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오 며, 당신은 위대한 분이시오며, 당신은 지극히 높은 분이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한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한 아버지이시 며,  
하늘과 땅의 왕이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시고 일체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 자체이시며, 모든 선이시며, 지상선이시나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참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사랑, 자비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오며, 당신은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오며, 당신은 아름다움이시오며, 당신은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과 기쁨이시며,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오며, 당신은 정의이시나이다.  
당신은 절제이시오며, 당신은 우리를 흠족하게 하는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오며, 당신은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후견인이시오며,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오며, 당신은 휴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오며,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며,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시오며,  
당신은 우리의 온전한 감미로움이시며,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세주이시여!

당신의 경험을 이 웹 사이트 ([www.formationcommission14@gmail.com](mailto:www.formationcommission14@gmail.com))에서 우리와 나누십시오.